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7/13/2016

주지사 앤드류 M. 쿠오모

쿠오모 주지사가 27에이커의 해리먼 캠퍼스 구획의 매입 및 개발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가 올버니에 있는 Governor W. Averell Harriman State Office Campus에 있는 프라임급 부동산 27에이커의 매입 및 개발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RFP에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계획을 요구하는데, 그 내용은 기존 캠퍼스에 대한 현재의 재개발에 기초해서 추진될 것, 지구의 특성을 반영할 것, 그리고 헬스케어, 기술, 연구, 교육, 소매 및 환대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범위의 잠재적인 옵션들을 통해서 올버니 시의 세금 기반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사용 용도에는 사무실, 의료 시설 및 연구 시설, 소매 상점, 숙박 시설, 그리고 부대 주차장이 포함됩니다. 최소 510만 달러의 구매 가격이 필수이며, 거주 용도가 포함된 제안서는 수락되지 않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슨 캠퍼스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투자 관계가 이미 하이테크 일자리의 성장과 교육 기회를 가열시키고 있는 뉴욕 주의 수도권 지역(Capital Region)에서 민간 차원의 개발을 하기 위한 특유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립대 올버니 캠퍼스가 바로 옆에서 E-Tech 프로젝트를 진척시킴에 따라, 이 토지는 지역의 혁신적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올버니의 세금 기반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안서는 2단계로 심사될 것이며, 최초의 응모는 9월 15일에 마감됩니다. 이 최초 응모 단계에서, 잠재적인 개발사들은 현장에 대해 제안하는 용도를 설명하고, 해당 용도의 필요성 또는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잠재적인 임차인 명단, 현장 계획 및 건축 디자인, 그리고 유사한 프로젝트의 완료에 대한 개발사의 경험에 관한 요약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의 응모들은 제안된 개발 컨셉의 품질, 디자인, 그리고 우리 주의 개발 목표와의 일치 여부는 물론이고, 캠퍼스의 기존 용도와 제안된 용도의 디자인 및 기능과의 양립 가능성에 기초해서, 뉴욕 주 일반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부동산 센터가 심사 및 평가합니다. 평가에서는 유사한 규모와 복잡성을 갖는 프로젝트에 관한 디자인, 엔지니어링, 건설, 파이낸싱, 임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잠재적 개발사의 경험도 고려할 것입니다.

일반 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 로안 데스티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지역 경제 개발 계획을 위한 전략적 시행 평가팀의 일원으로서, 저는 뉴욕 주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대규모 토지 구획은 변화한 사업 성장지에 특유하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 발표된 RFP에 대해서 많은 민간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토지 구획의 재개발은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와 그 안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카운티를 위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제공할 것입니다."

1단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3개 응모자가 가을에 발표될 것이며, 이들은 완비된 계약자 책임 문서 및 제안된 구매가격과 아울러,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한 구체적 재무 계획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 30일의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다음, 심사팀이 추가적인 2단계 정보를 심사하고, 1단계 점수의 60%와 2단계 점수의 40%로 구성되는 가중 점수 시스템에 기초해서 결선 응모자들 중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현장의 개발은 법무장관과 재무통제관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구매계약이 종결되며,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평가가 완료된 후에 개시됩니다.

RFP는 OGS NYSStore.com 웹사이트와 www.NYSHarrimanCampusLandForSale.com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RFP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는 개발사는 HarrimanRFP@ogs.ny.gov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주 상원의원 네일 브레슬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리먼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상업적 개발은 올버니 카운티와 올버니 시 모두를 위해서 굉장한 소식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전념한 쿠오모 주지사와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긍정적인 경제 활동의 진정한 허브가 되었다는 추가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세금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 하원의원 패트리샤 파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리먼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및 공공의 증가된 투자를 통해서, 올버니는 새롭고 흥미로운 개발 기회를 위해서 이 토지 구획을 해제하고, 그 혜택을 의심할 여지 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리더십에 대해서 쿠오모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주 하원의원 존 맥도널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해리먼 캠퍼스에 대한 이 RFP 절차가 올버니 시와 카운티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뉴욕 주의 수도권 지역을 위해서 제공하는 기회에 흥분됩니다. 수십년 동안 이 캠퍼스는 프로젝트 시작과 중단이 반복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제대로 착공된 적이 없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관심과 일반 서비스 사무국(OGS)이 고생해서 노력한 덕분에, 이 절차가 다시 개시되었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세금 기반이 확대되고, 적절한 이웃이 생기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버니 카운티 임원 데이엘 P. 맥코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리먼 캠퍼스에 대한 이 새로운 계획은 혁신과 개발을 고무시키고, 세금 기반을 추가시킵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올버니 시장 캐시 M. 쉬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토지는 모든 종류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곳으로서, 올버니 시의 사무 및 교육 중심부에 있는 프라임급 토지입니다. 우리는 이 바람직한 주 정부의 토지를 우리 시의 세금 기반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 뉴욕 주와 쿠오모 주지사께 감사를 드리며, 이는 올버니 주택 보유자, 토지 소유자 및 사업체 운영자들을 위해서 좋은 세금 관련 소식입니다."

이 캠퍼스 중 다른 부분에 대한 재개발은 이미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인프라 개선 작업과 기존 사무 공간의 리노베이션이 포함됩니다. 현재 뉴욕주립대 올버니 캠퍼스에 근접한 토지의 서쪽 부분 중 일부는 이 대학이 자신의 새로운 **Emerging Technology and Entrepreneurism Complex Campus**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ETEC 및 뉴욕 주 사무소 프로젝트들이 2020년까지 완료되는 경우, 이 토지 구역에는 주간에 대략 12,400명의 직장인과 학생들이 상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토지 구역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교외 사무 단지로 개발되었는데, 현재는 올버니 다운타운, 올버니 국제공항, 렌셀러에 있는 미국철도공사의 기차역과 우리 주의 그 밖의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주와 캐나다까지도 연결해주는 90번 및 87번 주간 고속도로와 스테이트 루트 85로부터 용이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이 부동산은 **National Grid**로부터 전기와 천연가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로부터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정보 기술 서비스를 위해서 광섬유와 구리 케이블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빌딩 3에 있는 새로운 최첨단의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OGS**는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회사인 **CBRE**를 고용했으며, 이 회사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구매자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 주 | 이그제큐티브 챔버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